



1970년대생 전진 배치... ‘세대교체’ 시동

제주도 “일하는 조직 구축 초점·성과 중심 인사 원칙 적용”
699명 규모로 직전보다 축소... 조직 안정·현안 대응 무게

민선 9기 제주도정은 25일자로 시행하는 첫 정기인사에 대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일하는 조직’ 구축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직원을 우대하는 ‘성과 중심’ 인사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정책을 총괄·주도할 핵심 보직에 1970년대생 실·국장급 간부들이 대거 전진 배치됐다는 것이다.

기획조정실장과 안전건강실장,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등 2급 이상 관 직위가 모두 1970년대생으로 채워졌다.

3급 부이사관 국장급 중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특별자치행정국장도 1970년대생이 발탁됐다.

4급 서기관 과장급에서도 핵심 보직 중 하나인 총무과장(1972년생), 민선 9기 도정이 신설한 AI혁신추진단장(1979년생)과 노동안전감독관(1976년생), 기본사회추진단장(1970년대생) 등 1970년대생이 대거 임용됐다.

제주도는 이같은 1970년대생 전진 배치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반면 문화체육관광과 해양수산국장 등은 유임됐다.

문화체육관광장의 경우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등 양대 체전을 앞두고 있는 점, 해양수산국장의 경우 시급한 해결 현안인 제주~청다오 항로 개설 협정 변경 협상을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유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2급 직위 중 보직을 맡은 지 6개월 밖에 안된 양제운 안전건강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조상범 도의회 사무처장을 다시 안전건강실장으로 복귀시킨 점을 놓고선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다.

도청 안팎에선 양기철 현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인사 이동 요인이 발생한 데 따른 불가피한 배치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1972년생인 조 사무처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발탁하면 정년을 6년이나 남기고 2급 이사관 자리를 모두 경험한 것이 돼 향후 인사에선 맡길 보직이 마땅히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시각이 있다.

제주도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농업기술원과 보건환경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의 간부급 보직들은 대부분 유임됐다. 3급 직위로 인정 받은 보직은 전부 제자리를 지켰고 4급과 5급으로 범위를 넓혀도 인사 이동 규모가 한 자리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민선 9기 첫 정기 인사 규모는 총 699명으로 직전 상반기 인사(878명)에 비해 100명 이상 적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유관기관에선 조직 개편이 없어 인사 이동 요인이 적었을뿐만 아니라 조직 안정화에 우선순위를 두자는 판단이 있었다”며 “또 새 도정이 출범한 만큼 인사 이동은 본청 조직 중심으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국제과학기술원 설립 근거 법안 등 제주특별법 개정안 3건 국회 심의 돌입

행안위 24일 전체회의에 상정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주국제과학기술원(JIST)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지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본격 심의에 나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위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문대립(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김한규(민중당·제주시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위 지사가 지난 2월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에 학부 없는 연구 중심 대학원 ‘제주국제과학기술원(JIST)’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국가가 연구비를 포괄적 출연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JIST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청년들이 꿈을 위해 제주를 떠나는

상황을 해결하고, 기업 연구소 및 스타트업 유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제주를 지식기반 산업 중심 지역으로 전환시킨다는 목표다.

김한규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타 지역 지자체들의 통합특별시 출범 가속화와 함께 5급3특 체제의 한 축인 제주가 통합특별시에 비해 지원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우선 고려, 공공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등을 법률에 명시했다.

문대립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육지 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를 국가와 제주도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하역·상·하차 비용과 항만 이용료 등 지원 범위를 구체화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도의회 행정시장인사청문회 21일 청문회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 ‘적합’ 행정 능력 검증은 뒷전 ‘맹탕’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가 맹탕으로 마무리됐다. 제주시정을 이끌 행정 수행 능력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정무적 질의와 논란 소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강봉직)는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인사청문에서는 후보자의 행정 전문성이나 시정 운영 정책,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에 대한 송곳 검증보다는 도의회 의장에서 제주시장으로 가는 것에 대한 정무적 입장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이 자리에서 청문위원들은 제주도의회 의장 임기가 종료된 직후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으로 직행하는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 위

상 저하와 함께 도의회의 감시·견제 역할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지적에는 깊이 공감하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 소신과 원칙을 지켜 나가면서 의원들이 걱정하지 않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피력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20일 국민 의힘 제주도당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한 석사 학위 논문 대필 및 관련 인사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부인하자 더이상 관련 질문은 이어지지 않았다.

더불어 이날 이 후보자는 행정시장 이후 정치적 행보를 묻는 질문에는 “크게 정치에 대한 미련이 없다. 주어진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행정가, 일반인을 떠나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 과정에



지난 21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가 질의에 답변하고 제주도의회 제공

서 지역공동체가 조금이나마 행복을 누린다면 당시의 삶이 값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작 행정시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예산 운용 체계, 현안 해결책 등 행정 수행 능력을 세밀하게 다룰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가에서는 도의회 수장을 지낸 전직 의장 출신 후보자이기 때문에 질의가 정무적 입장에 그쳐 결함기식 검증으로 끝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이날 도의회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 한 뒤 ‘적합’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는 종합의견을 통해 대규모 행정조직을 직접 운영한 경험과 일부 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나, 후보자의 의정 경험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 및 시정 운영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자를 제주시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태윤기자

제주, ‘K-뷰티 수출 거점’ 조성 대상지 선정 국비 45억원 포함 3년간 65억원 투입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케이(K)-뷰티 수출 거점’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지난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함께 팝업 스토어와 상생 체험관, 바이어 상담 등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공모에서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앞으로 국비 45억원을 포함한

총 65억원을 3년간 투입해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In Beautiful Jeju)’를 수출 허브로 고도화하고, 로컬 편집샵과 연계해 제주를 K-뷰티 수출 거점으로 조성한다.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는 지난해 11월 이미 문을 열었다. 도는 앞으로 이 곳에 바이어 상담실과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크루즈 입항 및 지역 축제와 연계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이상민기자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사회성과 비례 인센티브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사회연대경제기업에 사회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 신규 사업인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에 따른 것으로 도내 우수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만든 사회적가치 성과를 측정해 뒤 그 결과에 비례해 20% 상한 안에서 사업비 형태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14개 기업이 지난해 만든 사회적가치는 약 16억7800만원으로 집계됐고, 이에 따라 약 2억42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오소범기자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교육의 장

학생모집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서귀포오석학교**에서 2026/27학년도 학사 일정 시작에 맞춰 다음과 같이 각 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다 음

○ **정규교육과정**

오전 수업				오후 수업			
초등 문해1	초등 문해2	한글 기초	초등 문해1	초등 문해2	초등 문해3	중고 과정 중학영어	중고 과정 고졸 과정
15명	15명	15명	10명	15명	15명	10명	15명

○ **평생교육프로그램**

영어초급(금)	영어회화(화)	컴퓨터교실(목)	스마트폰교실(화)
10명	10명	10명	10명

※ 강의 요일 및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모집대상** : 성인, 어르신, 결혼이주여성, 학업 중단 청소년 등

○ **모집기간** : 9월 11일(금)까지(수시 입학 가능)

○ **개강일** : 9월 14일(월)

○ **수업시간** - 오전 수업: 10:00~12:00(주 3회)
- 오후 수업(주 5회)
· 문해교육 : 19:00~21:00
· 감성교시 : 19:00~22:00
· 평생교육프로그램 : 18:00~19:00

○ **수업료** : 전액 무료 및 교재 지원

○ **문의** : ☎ 762-2487(오전 10시 이후 통화가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동로 43-2(서귀동)
(서귀포 시민문화광장 부근)

since 1967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서귀포오석학교**
[2026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귀포시 -
http://www.osuk.co.kr

그랜드보청기

24시간 상담/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보청기 고객감사 특별할인!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충전형 귓속형 보청기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샅샅을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서비스마일 **서사라 사거리** 그랜드보청기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탈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맛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싱크대 제작/불박이장/침대/소파/가구일체
구입문의 064)758-0065